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b> <small>뿐입니다</small>	
		배포일자	2023년 3월 20일(월) 총 2매		
담당 부서	도 로 과	담 당 자	• 광역도로팀장 하광택 ☎440-3791 • 담당자 박지원 ☎440-379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6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복 시장,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 추진으로 감사패 받아

- 영종무료통행시민추진단 등 지역주민,  
 “인천 발전과 인천공항 도약 위한 담대한 결정에 감사”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올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 추진으로 인천시의 발전과 세계적 도시로의 도약을 이뤄냈으며, 영종국제도시무료통행시민추진단(및 인천광역시총연합회)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규찬 영종무료통행시민추진단 공동대표, 이재구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공동대표, 영종학부모연대 박수현 공동대표는 20일 유정복 시장에게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인 인천광역시의 발전과 세계적 인천국제공항의 도약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영종대교·인천대교의 통행료에 대한 담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인천시민(중구 영종, 옹진군 북도면)들의 통행료 무료화를 관철시킨 귀하께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았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8일 영종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영종주민 이동권 보장과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전면무료’ 시행과 ‘전국 최초 지역주민 감면 하이패스’의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타 민자도로에 비해 높게 책정된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반값 이하로 인하’ 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는 영종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었는데, 주민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본격적인 통행료무료 시행까지 시스템구축·민간사업자 변경협약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10월 1일 개통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6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